

---

# 대학 여가·레크리에이션 이론수업이 수강생의 여가태도에 미치는 영향

## Effect of Leisure & Recreation Liberal Art Lecture in the University on Leisure Attitude

---

이연주  
한림대학교

Yeon-Ju Lee(sport-freeman@hanmail.net)

---

### 요약

대학에서의 여가교육은 여가·레크리에이션 이론 및 실기강의, 교양체육과 같은 각종 여가활동 실기강의를 통해 직접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교양체육과 같은 실기과목 강의가 수강생들의 여가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론강의에 대한 효과는 검증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가교육 이론 강의가 수강생들의 여가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험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자는 피험자로 충청북도 S대학교의 여가·레크리에이션 교양 이론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 167명을 선정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15주 동안 매주 2시간씩 강의를 진행하여 여가태도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Ragheb과 Beard[22]의 LAS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첫 강의와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면서 설문지를 배포 후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인 SPSS 12.0을 활용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 결과 여가교육 이론 강의는 여가태도의 4개 하위영역 즉, 인지적, 정서적, 행동 의도적, 그리고 행동적 여가태도 모두에서 높은 수준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수강생들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여가태도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 중심어 : | 여가교육 | 여가태도 | 레크리에이션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 the effect of the leisure lecture on the class participants' leisure attitude. To achieve the purpose, a experiment method was performed. The 167 subjects for this experiment were extracted from two leisure lectures of a university located in north Chungcheong province. With those subjects, a leisure lecture was operated for two hours in a week for fifteen weeks. To collect data, Ragheb & Beard[22]'s LAS(Leisure Attitude Scale) was used. The scale was used twice for the subjects. The first was tested at the beginning of first lecture and the second was at the last lecture.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with paired t-test by SPSS 12.0 program for Windows. The results proved that the leisure lecture affected on the subjects' all four sub-factors(cognitive, affective, intent, behavioral) of leisure attitude. Furthermore, the effect of the lecture was different by sex and grade.

■ keyword : | Leisure Education | Leisure Attitude | Recreation |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입시를 위해 활용함으로써 개인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여가교육 또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가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갑자기 증대된 여가시간을 어찌할 줄 몰라 당황하게 되고 여가시간을 그저 향락·퇴폐적인 시간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4].

박영숙[8]은 대학생 계층은 가장 활발하고 자발적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층이며, 사회인으로서 출발을 준비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라는 점에서 건전하고 유익한 여가활동 향유와 그를 위한 여가 교육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집단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학은 학생들에게 실기와 이론 교양강의를 통해 직접적인 여가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간접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대학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여가교육의 환경을 접하면서 여가태도를 형성해 가고 있다.

태도(attitude)는 한 사람이 과거로부터 학습한 경험의 산물로서 주어진 대상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긍정 혹은 부정의 방법으로 보이는 학습된 경향[19]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가태도는 “한 개인이 여가(leisure)에 대하여 긍정 혹은 부정의 방법으로 일관성 있게 보이는 경향”이라 할 수 있다. 여가태도는 다차원적 구조로 보고되고 있다. Ragheb과 Beard[22]는 여가태도를 여가활동에 대한 지식이나 신념에 해당하는 인지적 태도, 좋아함, 싫어함 그리고 그들에 대한 다른 느낌에 해당하는 정서적 태도, 그러한 활동에 관하여 과거 혹은 현재의 행동 패턴에 해당하는 행동적 태도 등과 같이 3요인 모형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Bagozzi와 Burnkrant[18]는 인지적 요인과 감정적 요인의 2요인 모형을 주장하고 있다. 이문진, 김미량, 김동진[12]은 Ragheb과 Beard[22]의 3요인 모형 중 행동적 여가태도를 의도와 행동으로 구분하여 4요인 모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의 연구결과이면서 가장 최근에 발표된 4요인 모형을 채택하였다.

국내에서는 최근 들어 여가교육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1]. 여가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체계적인 여가교육을 위해 모델제시하거나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9][11]와 다른 하나는 여가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2][6][17]이다. 본 연구는 대학 이론강의가 수강생들의 여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므로 후자의 연구 경향에 해당한다.

여가태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경향으로 분류된다. 첫째, 여가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여가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된다고 주장하는 연구[4][7][16], 둘째, 대학 체육수업이 여가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연구[4][10], 셋째, 여가태도가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3][10][14] 등이다. 이렇듯 여가태도는 직접적으로 여가활동에 참가하거나 실기 수업을 수강함으로써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가태도는 여가행동과 긍정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여가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정기적으로 그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여가태도는 여가활동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20][21][15]. 따라서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의 여가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여가교육 프로그램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교육 이론강의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수강생들의 여가태도가 변화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에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가교육 이론 강의가 수강생들의 여가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I. 대학 여가·레크리에이션 이론수업 수강생들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 의도적, 행동적)여가태도는 수강 이전과 이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 대학 여가·레크리에이션 이론수업 수강생들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여가태도의 변화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실험연구이다. 피험자는 대학 여가·레크리에이션 교양 이론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수업 수강생들을 목적표집법(purposeful sampling method)으로 표집하였다. 본 연구에 참가한 학생들은 모두 167명으로 충청북도에 소재한 S대학교에 재학중이면서 여가·레크리에이션 교양 이론강의에 수강 신청한 학생들이다. 전체 수강생은 1학기 105명과 2학기 130명이었으나 학기 첫 수업에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종강 수업에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사전·사후조사 모두에 참가하고 불성실하게 답변한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수강생만을 피험자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학기 실험에 참가한 수강생이 65명이고 2학기에는 102명이었다.

표 1. 피험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학생	61	36.5
	여학생	106	63.5
학기	1학기	65	38.9
	2학기	102	61.1
학년	1학년	81	48.5
	2학년	54	32.3
	3,4학년	32	19.2
전체		167	100

본 연구에서는 실험 통제집단을 설정하는 대신 1학과 2학기의 사전조사에 참가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여가태도의 모든 요인에 대해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동질성이 입증되었다. 이는 여가·레크리에이션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학기에 관계없이 여가태도에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표 2. 집단간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요인	학기	N	M	SD	t	df	P
인지	1학기	65	4.188	.471	-.801	165	.424
	2학기	102	4.257	.581			
정서	1학기	65	4.343	.489	.772	165	.441
	2학기	102	4.268	.686			
의도	1학기	65	3.923	.691	-.172	165	.863
	2학기	102	3.941	.642			
행동	1학기	65	3.200	.794	-.569	165	.570
	2학기	102	3.267	.709			

$P < .05$

### 2. 조사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조사도구는 설문지로 구성내용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조사도구 구성

구 분		문항수	
일반적 특 성	성별	1	4
	학년	1	
	학과	1	
	이름	1	
여가태도	인지	4	16
	정서	3	
	의도	5	
	행동	4	
전 체		20	

피험자의 일반적 특성과 사전과 사후의 조사결과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성별, 학년, 학과 이름을 조사도구의 마지막 부분에 기입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자가 여가교육 이론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한 조사도구는 Ragheb과 Beard[22]가 개발하고 김정태[1]가 번안한 여가태도척도(Leisure Attitude Scale: LAS)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여가태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매우 그렇다'에 5점, '대체로 그렇다'에 4점, '그저 그렇다'에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에 2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부여하였다.

### 3. 연구절차

측정은 1학과 2학기 모두 사전측정은 수업 첫 시간에 사후 측정은 종강 시간에 이루어졌다. 여가교육 이

론 강의 프로그램은 [표 4]와 같다. 세부적인 강의내용을 설명하면, 매주 2시간씩 총 15주가 진행되었고 그 중 중간고사 1회와 기말고사 1회가 진행되어 실질적인 교육은 13회가 이루어졌다.

강의 프로그램은 원형중, 이승민, 박수정[11]이 제안한 여가교육 영역을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 상 프로그램 내용은 그들이 제안한 여가수용능력과 여가활용능력 중 전자에 해당하는 영역에 한정되었다. 2시간 강의 프로그램 중 전반부에는 강사가 주입식과 토론식을 병행한 이론강의를 진행하였고, 후반부에는 수업 당 5명씩의 학생들이 자신의 여가활동을 약 5분 정도의 시간동안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과제물은 7차시까지 제출과 15차시까지 제출하는 방식으로 두 차례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과제는 자신의 여가활동을 수업시간에 학습한 여가행동이론으로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과제는 첫 번째 과제와 같은 방식으로 친구를 제외한 30세 이상의 주변사람과 면담하여 그분의 여가활동을 분석하는 것이다.

표 4. 조사도구 구성

주별	강의주제
1	강의 개요 및 여가교육의 필요성
2	동영상 시청 (SBS 스페셜-당신의 주말은 안녕하십니까?)
3	유사용어의 개념 및 정의 (여가, 레저, 레크리에이션, 놀이, 게임, 스포츠)
4	여가교육, 치료 레크리에이션 (여가교육과 치료레크리에이션의 관계, 여가교육의 영역 및 모델)
5	여가행동이론 I (여가태도, 여가제약, 여가정체성, 재미)
6	여가행동이론 II (진지한 여가, 여가활동 전문화, 몰입경험, 여가중독)
7	중간고사
8	여가론 (원시사회, 고대 그리스, 중세, 근세, 근대, 현대)
9	자본주의와 여가 (자본주의의 생성, 자본주의 발달과 근대여가, 노동소외, 자본주의 여가의 특징)
10	여가생활 설계의 방법과 실제 (시간분석, 활동분석, 욕구분석, 목표설정)
11	생애주기와 여가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초기성인기, 성인기, 노년기)
12	일과 여가 (일과 여가의 관계, 구분, 조화, 휴테크)
13	여가정보 (개념 및 유형, 구분, 활용법)
14	여가와 건강한 삶 (환경조절을 통한 건강관리, 운동을 통한 건강관리)
15	기말고사

표 5. 여가태도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성분			
	행동	의도	정서	인지
나는 바쁘더라도 여가활동에 참여한다.	.824	.187	.008	.115
나는 나의 일상생활 중에서 여가활동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771	.177	.142	.085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여가활동을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다.	.698	.182	.233	.008
나는 여가활동을 자주한다.	.635	.010	.417	.113
시간과 돈이 허락한다면, 나는 새로운 여가활동을 더 많이 하고 싶다.	.032	.796	.178	.018
여건만 허락한다면, 여가활동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이나 도시에서 살고 싶다.	.009	.690	.318	.134
나는 여가활동 참여를 위한 나의 자유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208	.678	-.023	.140
나는 나의 여가활동을 배우고 준비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싶다.	.478	.630	-.099	.244
여건이 허락한다면, 나는 여가활동에 시간을 더 늘리고 싶다.	.293	.611	.082	.141
나는 나의 여가활동을 좋아한다.	.270	.131	.793	.100
여가활동은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	.057	.055	.724	.259
여가활동은 나에게 유쾌한 경험들을 제공한다.	.305	.195	.610	.146
여가활동은 개개인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볼 수 있다.	.028	.207	.043	.786
여가활동은 건강에 도움을 준다.	.211	.027	.098	.777
여가활동은 자기발전의 수단이 될 수 있다.	.086	.107	.259	.598
여가활동은 행복을 증진시킨다.	.056	.129	.466	.582
고유치	5.177	1.836	1.551	1.135
공통분산%	32.357	11.474	9.696	7.095
누적분산%	32.357	43.831	53.527	60.621
Cronbach's Alpha	.798	.780	.707	.715

#### 4. 신뢰도 및 타당도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척도의 구인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높이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이용하였다. 전체 167개 사례의 사전과 사후 조사결과 중 사전조사 사례만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고유치가 1.0 이상인 요인만을 추출한 결과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추출된 요인은 전체 변량의 60.6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태도의 4요인은 인지, 정서, 행동, 의도로 이문진, 김미량, 김동진(2006)이 제시한 요인구조와 일치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살펴보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통해 살펴보았다. 검사결과 모든 요인이 .707 이상으로 신뢰도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5. 자료처리

본 실험 연구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용 통계 프로그램 12.0을 사용하였다. 피험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alpha와 탐색적 요인분석을, 피험자 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independent sample) *t*-검정을,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대응표본(paired sample) *t*-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강의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개인적 특성에 해당하는 사례와 여가태도 하위영역의 사전측정 평균값이 5가 아닌 사례만을 선택하여 사전과 사후간의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남학생의 인지적 태도의 경우 성별에서 남학생 사례 중 인지적 태도 사전측정 평균값이 5가 아닌 사례를 선택하여 대응표본으로 분석하는 방식이다. 통계분석의 유의수준은 유의확률 0.05 미만( $P < .05$ )으로 설정하였다.

###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 1. 대학 여가레크리에이션 이론수업이 여가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학 여가·레크리에이션 이론수업이 여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실험 대상으로 선정된 전체 167명의 피험자 중 사전조사에서 여가태도의 각 하위영역에 해당하는 모든 문항에 최고점수인 5를 선택한 사례는 통계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가태도의 모든 하위영역 즉, 인지적, 정서적, 행동의 도적, 그리고 행동적 여가태도에서 유의확률이 0.01보다 낮아 통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정서적 여가태도와 행동적 여가태도의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로써 연구가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표 6. 여가교육 전후의 대응표본 *t*-검정 결과

태도	전·후	N	M	SD	t	P
인지	사전	141	4.088	.465	-2.707	.008
	사후	141	4.214	.472		
정서	사전	131	4.104	.557	-4.395	.000
	사후	131	4.333	.469		
의도	사전	156	3.859	.616	-2.909	.004
	사후	156	3.997	.560		
행동	사전	163	3.197	.697	-5.291	.000
	사후	163	3.481	.653		

$P < .05$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대학생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의 여가시간을 스스로 관리할 기회를 얻게 된다. 이들에게 있어 긍정적인 여가태도는 여가만족[3][14] 및 생활만족[10]으로 이어져 앞으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에게 대학 과정 중 여가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동안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교양체육을 수강 [4][10]하거나, 동아리 활동에 참가[4][14]함으로써 여가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을 뿐, 이론강의에 의한 효과는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결과는 이론강의를 통한 여가교육 또한 수강생들의 여가태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대학생 이외의 사례에서도 사람들이 여가활동에 직

접 참가하였을 때 그들의 여가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16].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대학 및 사회교육 기관에서 이론적인 여가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여가태도의 하위요인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강의실에서 이루어진 이론강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지적, 정서적 태도뿐만 아니라 행동 의도적, 행동적 태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는 이론강의가 인식의 차원을 넘어 수강생들의 실질적인 여가활동 참가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노용구[6]는 여성노인을 대상으로하여 여가교육 프로그램이 행동적 여가태도에 효과가 있음을 밝혔고, 김재운[4]은 대학생의 교양체육 수강횟수가 인지적 태도, 정서적 태도, 그리고 행동적 태도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김홍설 등[5]은 청소년의 여가태도 중 인지적 태도는 여가활동의 빈도, 기간, 강도와 정(+ )적인 인과관계에 있으며, 정의적 태도는 빈도와, 그리고 행동적 태도는 기간과 정(+ )적인 인과관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여가태도와 여가활동 참가행동의 관계를 지지하고 있다.

## 2. 대학 여가레크리에이션 이론수업 수강생들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여가태도의 변화

대학 여가· 레크리에이션 이론수업 수강생들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여가태도의 변화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해 일반적 특성에 맞는 사례를 선택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 2.1 성별에 따른 여가태도의 변화

강의식 여가교육 프로그램이 수강생들의 여가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에 따른 효과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통계분석결과 여학생들의 경우 여가태도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강의의 효과가 확실히 검증되었다. 반면, 남학생들의 경우 행동적인 태도에서만 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성별에 따른 여가태도 대응표본 t-검정 결과

태도	성별	전·후	M	N	SD	t	P
인지	남자	사전	4.088	51	.481	-.840	.405
		사후	4.161	51	.473		
	여자	사전	4.088	90	.459		
		사후	4.244	90	.471		
정서	남자	사전	4.111	42	.592	-1.960	.057
		사후	4.293	42	.455		
	여자	사전	4.101	89	.544		
		사후	4.352	89	.477		
의도	남자	사전	3.827	58	.656	-.970	.336
		사후	3.910	58	.635		
	여자	사전	3.877	98	.594		
		사후	4.049	98	.507		
행동	남자	사전	3.389	59	.750	-2.574	.013
		사후	3.631	59	.710		
	여자	사전	3.088	104	.644		
		사후	3.396	104	.606		

P < .05

전매희[13]는 대학교 남학생의 경우 모든 하위 여가태도 영역(인지적, 정서적, 행동적)에서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김재운[4]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여가태도의 차이에서 인지적 태도와 정서적 태도에서 두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행동적 태도에서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매희[13]의 연구에서는 여가스포츠 참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김재운[4]의 경우는 교양체육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점에서 서로 다른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연구결과는 본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하는 것으로 남학생들은 정(靜)적인 태도인 인지적, 정서적 태도보다는 동(動)적인 태도인 행동적 태도에 반응하는 경향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남학생을 지도하는데 행동적인 측면이 강한 실기 위주의 수업을 적극 활용할 때 더 높은 효과를 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한다. 강의는 계단식 대형 강의실에서 이루어졌고, 교양수업인 만큼 학생들이 수업에 임하는 태도에서 여학생들이 강의실 앞쪽에 앉는 경향이 높았고, 수업에 집중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러한 성별에 따른 수업태도의 차이가 수업효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2.2. 학년에 따른 여가태도의 변화

강의식 여가교육 프로그램이 수강생들의 여가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학년에 따른 효과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통계분석결과 1학년의 경우 정서적 태도와 행동적 태도에서 효과가 있었고, 2학년의 경우는 인지적 태도만을 제외한 정서적 태도, 행동 의도적 태도, 행동적 태도 모두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4학년의 경우는 1학년과 마찬가지로 정서적 태도와 행동적 태도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로 볼 때, 본 여가교육은 학년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며, 2학년 학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표 8. 학년에 따른 여가태도 대응표본 t-검정 결과

태도	학년	전·후	M	N	SD	t	P
인지	1학년	사전	4.054	69	.451	-1.969	.053
		사후	4.192	69	.469		
	2학년	사전	4.095	47	.506	-.925	.360
		사후	4.164	47	.469		
	3,4학년	사전	4.170	25	.431	-1.804	.084
		사후	4.370	25	.468		
정서	1학년	사전	4.099	64	.601	-2.341	.022
		사후	4.296	64	.514		
	2학년	사전	4.098	44	.490	-3.300	.002
		사후	4.356	44	.433		
	3,4학년	사전	4.130	23	.575	-2.443	.023
		사후	4.391	23	.410		
의도	1학년	사전	3.889	76	.620	-.882	.381
		사후	3.955	76	.560		
	2학년	사전	3.707	52	.619	-3.192	.002
		사후	3.946	52	.599		
	3,4학년	사전	4.057	28	.549	-1.523	.139
		사후	4.207	28	.443		
행동	1학년	사전	3.253	79	.698	-2.732	.008
		사후	3.474	79	.638		
	2학년	사전	3.120	52	.690	-3.092	.003
		사후	3.389	52	.617		
	3,4학년	사전	3.187	32	.715	-3.878	.001
		사후	3.648	32	.731		

P < .05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가교육 이론 강의가 수강생들의 여가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실험연구방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대학의 이론강의식 여가교육은 수강생들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 의도적, 행동적)여가태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둘째, 대학의 이론강의식 여가교육은 수강생들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인지적, 정서적, 행동 의도적, 행동적)여가태도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

2. 제언

본 연구는 특정 대학교의 특정과목 수강생들만을 피험자로 선정하여 가설을 입증하였다. 추후에는 여러 대학과 여러 과목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여가·레크리에이션 이론강의, 레크리에이션 실기강의, 기타 교양강의, 다양한 여가활동 실기강의 등을 구분하여 비교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학년의 특성과 동아리 활동 여부, 학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한 단계 발전된 연구를 진행하여 세부적인 프로그램마련의 근거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1] 김경태, “여가활동 참여와 여가태도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6.  
 [2] 김동건, 조민행, “여가교육과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의 심리사회적 건강”, 한국체육학회지, 제43권, 제4호, pp.661-670, 2004.  
 [3] 김미량, “댄스스포츠 참가자의 여가태도와 여가기능 및 여가만족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제31권, 제1호, pp.73-84, 2007.  
 [4] 김재운, “대학생의 교양체육 수강과 동아리활동 참여가 여가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교육학회지, 제5권, 제2호, pp.126-143, 2001.  
 [5] 김홍설, 송강영, 김경식, 구창모, “청소년의 여가활동과 여가태도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6호, pp.123-134, 1996.  
 [6] 노용구, “노인 여가 교육 프로그램이 여가태도와

여가만족에 미치는 효과”,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13권, pp.351-361, 2000.

[7] 박수정, “전문적 여가참여와 몰입경험, 여가태도의 인과 모형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제43권, 제5호, pp.719-727, 2004.

[8] 박영숙, “대학생의 여가활동 유형과 생활만족도에 대한 분석”,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제17권, pp.71-82, 1999.

[9] 박장근, 신희진, 정수현, “대학생들의 여가개념과 여가교육의 방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17권, pp.867-878, 2002.

[10] 심상신, “대학생들의 체육수업 참여만족과 여가태도 및 학교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제43권, 제1호, pp.309-314, 2004.

[11] 원형중, 이승민, 박수정, “여가중심사회를 위한 여가교육”, 한국체육학회지, 제46권, 제1호, pp.617-626, 2007.

[12] 이문진, 김미량, 김동진, “스포츠형 여가활동 참여자의 여가태도척도(LAS) 요인구조 검증”, 한국체육학회지, 제45권, 제2호, pp.77-86, 2006.

[13] 전매희, “여가스포츠참여 대학생의 여가태도와 여가기능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제32권, 제2호, pp.129-138, 2008.

[14] 전태준, “동아리 참여 대학생의 여가태도가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제32권, 제4호, pp.61-71, 2008.

[15] 하지연, 원형중, “직무유무에 따른 성인여성의 여가기능, 여가태도, 여가권태의 차이”,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6권 pp.155-168, 1996.

[16] 홍석표, “유년기의 스포츠 경험이 여가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18권, pp.471-479, 2002.

[17] 한승진, “대학생의 여가 능력과 행복감 증진을 위한 여가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9.

[18] R. P. Bagozzi and P. E. Burnkrant, “Attitude organization and the attitude: A reply to Dillon and Kumar. J. Press. Soc.” Psychol, Vol.47,

pp.1191-1205, 1985.

[19] M. Fishbein and I. Ajzen,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Mass: Addison Wesley. 1975.

[20] G. Godin and R. J. Shephard, “Importance of type of attitude to the study of exercise behavior,” Psychological Reports, Vol.58, pp.991-1000, 1986.

[21] M. Manfredi and S. M. Yuan, “The influence of attitude accessibility on attitude-behavior relationship: Implication for recreation research,”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24, No.2, pp.157-170, 1992.

[22] M. G. Ragheb and J. G. Beard, “Measuring leisure attitud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14, No.2, pp.155-167, 1982.

### 저 자 소 개

이 연 주(Yeon-Ju Lee)

정회원



- 2006년 8월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졸업(체육학 박사)
- 현재 : 서울대학교, 한림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시간강사

<관심분야> : 여가·레크리에이션, 스포츠사회학